


|  |        |                      |
|--|--------|----------------------|
|  <b>한국여성정책연구원</b><br><small>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small><br><br><b>보 도 자 료</b><br><br>2014.7.23.(수) | 자료문의   | 동 제 연 (02-3156-7162) |
|  | 언론담당   | 황 애 리 (02-3156-7296) |
|  | 보도일자   | 2014.7.23.(수)        |
|  | ※ 총 3쪽 | www.kwdi.re.kr       |

##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 높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경력단절의 사유, 경력단절 기간과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 등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특성 다룬 분석결과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의 문유경 선임연구위원, 동제연 연구원, 손현민 연구원은 통계청의 2011년 2/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14-1>을 통해 발표하였다.

※ 경력단절 여성 : 20-54세의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 때문에 직장(일)을 그만두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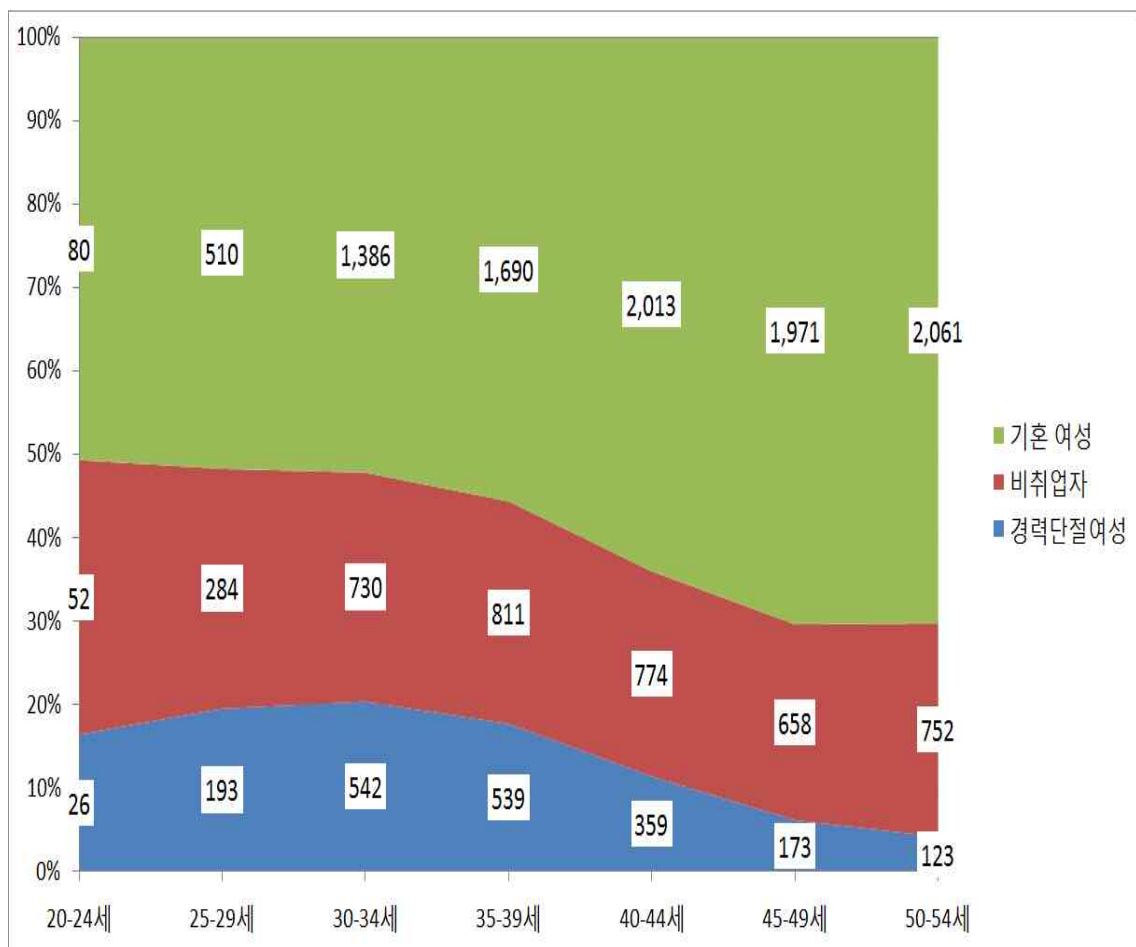
- 본 자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 경력단절의 사유, 경력단절 기간과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 등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특성을 다뤘다.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3년 상반기 현재 경력단절 여성은 195만5천명  
⇒ 30~34세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아

- 최금숙 원장은 “이번 자료를 통해 향후 여성의 경력유지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도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 조사 의의를 밝혔다.

- 2013년 상반기 현재 경력단절 여성은 195만5천명임.
- 2013년 20-54세 기혼여성은 971만1천명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은 406만1천명으로, 이중 가정일(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생))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의 20.1%를 차지함.
-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48.1%를 차지함. 이는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 2명 중 1명은 가정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임을 보여줌.

(단위 : 1,000명)



자료: 통계청(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그림 1> 기혼여성의 연령별 비취업자와 경력단절자 규모

- 연령별로는 30-34세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39.1%로 가장 높고, 그 전후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인구가 누적되다가 35세 이후로 육아를 마친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비취업자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도 이와 비슷한 추세로 30-34세 연령집단이 74.2%로 가장 높고 그 전후로 하향세를 보임. 즉 이 연령대의 비취업자 여성 4명 중 3명은 가정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임.
- 반면 고용률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향추세를 보이다 45-49세에 66.6%로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함.

## 별첨.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14-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31년 역사를 가진 정부출연 국책 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